

# 조류 탐사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김진형\*

\*청운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e-mail:jinkim@chungwoon.ac.k

## A Study on Acquiring Specialty for Bird-watching Science Museum

Jin-Hyung Kim\*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세 곳의 조류 탐사관의 건축 및 전시 디자인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류탐사관은 그 전시물의 내용상 자연사 박물관에 가까운 형식을 갖는다. 그러나 주로 조류의 관찰과 생태에 그 초점을 두는 전문화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류 탐사 시설은 최근의 지역주의와 관광 자원 개발의 유행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잘 보존하고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특성화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화하는 지역 마케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와 지역 문화의 낙후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과 지역 문화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단합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사업성 확보와 지자체 정치인의 치적성 공약 등 정치와 경제적 이권에 휘둘러 본래의 의지는 퇴색되고 행사와 건축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음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조류 탐사 과학관을 건축 및 전시 디자인적 관점에서 조사 비교 분석하여 추후 새로운 조류 탐사 과학관의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조류 탐사 시설에 있어서는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서해안 지역의 조류 탐사관 현황

#### 2.1 입지 및 건축적 특징

현재 서해안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도권을 제

외한 지방은 크게 충남, 전북 전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 지역의 박물관 현황을 정리하여보면 다음의 [표1]와 같다. 예상외로 충청남도 지역에는 단순 박물관의 숫자가 전북과 전남 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류 탐사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두 곳이 있으며 백제 문화를 담고 있는 두 곳의 국립박물관과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 입지의 원인은 크게 유적의 분포가 많고 적음의 유무와 더불어 수도권과의 교통 용이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경우 관련성 있는 박물관이 여럿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인 서해안 지역에 있는 조류 탐사 관련 전시 시설의 현재 운영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서해안 인근 주요 지역 박물관 현황

충남	전북	전남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부여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남진미술관
-독립기념관	-팬아시아종이박물관	-동신대학교 영상박물관
-온양 민속박물관	-동진수리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지당자연사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	-목포시 향토문화관
-계룡산자연사박물관	-목포 자연사박물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교과서 박물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한국대나무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	-유석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보령석탄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나주배 박물관
-복권박물관		
-한국고건축박물관		
-한산모시관		
-원충사유물관		
-윤봉길의사기념관		
-공주민속국박물관		

[표 2] 서해안 지역 조류 탐사관

명칭	위치	운영현황	건설형식
군산철새조망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	운영중	신축
조류탐사과학관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692-1	운영중	신축
조류생태전시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번지	개관예정	리모델링

**2.2. 군산 금강 조류 공원**

전북 군산시 성서면에 위치한 철새 조망대는 오리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건물의 외형을 하고 있다. 유치한 직유법적인 외형과 내용의 표현인데 가장 주된 이용자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어린이 관람객의 반응은 매우 인기 있는 외관이였다. 이것은 우연히도 로버트 벤츄리가 그의 저서 “라스베가스의 교훈”에서 언급한 “오리(duck)”과 일치하는 형태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직유적인 형태의 건축외관으로의 도입을 “오리”라는 단어와 그림으로 대변하고 있다. 금강하구 독의 갯벌과 갈대숲과 함께 독 너머 광활한 논밭은 새들의 먹이원이 되어 철새서식지로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철새들을 관람하기위해 탐조시설을 강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군산 금강 조류 공원

항목	나포십자들넉 탐조회랑	군산 철새 신채탐험관	조망대
외관			
특징	특징없는 외관	오리형태건물모양	우수한 시야를 제공

군산 금강하구 조류공원에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조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나포십자들넉과 조류 관찰소에는 탐조회랑이 설치돼 있고 금강조류 공원에는 11층 높이의 조망대가 있다. 조망대는 원기둥 형태를 하고 있어서 멀리 있는 새의 관찰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시야를 제공한다. 그러나 건축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독창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가에 설치한 탐조회랑은 원목을 재료로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의도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주변 자연경관에 이질적인 인공 건축물로서 도드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면의 처리와 색채계획에 있어서 좀 더 자연에 융화하는 디자인을 고민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2.3. 홍성 조류 탐사과학관**

홍성 조류 탐사과학관은 2009년 4월 개관하여 현

재 운영 중에 있다. 충남 홍성군 궁리 해안가에 자리 잡은 전시관은 대지면적 : 9,133.00㎡, 건축연면적 (1,465.78㎡), 전시면적(875.9㎡)의 규모이다. 지상 2층의 건물로 옥외 면적 약 8000㎡이다. 건축적으로 보면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와 로이 글래스 그리고 목재 루버를 사용하여 앞서 군산의 철새조망대와는 비교된다.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와 현대적인 재료와 공사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성 툇게이트에서 지역 관광 명소인 안면도를 향해 가는 도로변에 입지하는 만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도 그 기능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세련된 외관은 적절한 디자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연의 새의 관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입지에 있어서 바닷가를 직접적으로 면하지 못하고 도로를 넘어 바다의 시야가 펼쳐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휴게 공간이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물의 외관도 철새를 불러들이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한다고 하는 조류 탐사관의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설계자는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목재 루버를 전면 벽체에 폭넓게 설치하여 콘크리트의 이질감을 상쇄하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4] 홍성 조류 탐사관 이미지



항목	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배치도	홍성 조류탐사 과학관 조감도	홍성조류탐사 과학관 새 캐릭터
이미지			
특징	자연친화적이고 야외공간에 신경을 쓴 배치계획	현대적인 외관, 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의인화한 캐릭터 사용 심도 있는 전시지향

**2.4.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지자체에서 기존의 일반음식점 건물을 인수하여 개조하고 철새 탐조대로 활용하였으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낡은 금강철새 탐조대 건물 외관 및 내부 전시를 최근의 추세와 맞물려 새롭게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서 2007년 말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작품이다. 위치상으로는 군산의 철새 조망대와는 금강을 앞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하는 형상이다. 건축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마감(드라이비트)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시공하는 건식공법(베이스패널)을 도입하여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원형메스 부분은 일부 철거 후 재시공을

통해 원뿔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입면의 변화를 추구하며 전면 입면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외관의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실내에서의 조망을 좋게 하였다. 커튼월과 더불어 외관에 목재 루버를 써서 철새에게 주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고 한다.

[표 5]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 CG

항목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외관 CG	전시관 배치도	1층 실내공간
이미지			
특징	수공간과 바로 인접한 배치로 담조 우수	철새 조망에 최적의 조건	까끔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디자인

### 3. 박물관 특성화 방안

#### 3.1. 시민사회와 박물관

유럽의 박물관은 시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자리한다. 이같이 박물관과 시민과의 관계는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성숙한 사회 환경의 형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박물관측이 목적의식을 지닌 자료의 수집과 정리분석을 거친 데이터의 축적 위에 보유하는 문화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활동을 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벨기에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벨기에 박물관(미술관)의 특징은 시설이 크고 작음에 따라 규모는 다르나 반드시 교육 부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교육 부문이 기획·운영하는 것은 안내 가이드, 미술 감상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생일파티 장소를 제공하는 일까지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어권 내의 박물관(미술관)을 총괄하는 협회가 있어 박물관 스태프와 함께 문화 교육 활동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벨기에에서의 박물관 활동은 단순한 전시·공개의 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의 문화활동 시설으로써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989년부터 5년간 보드완(Baudouin)국왕재단의 재정적 원조에 의해 박물관(미술관)과 학교교육이 연계된 기획, “박물관을 젊게 하는 작전”이 실행되었다. 청소년기 교육의 일환으로 예술작품에 대해 젊은이가 흥미를 갖게 하여 정서면에서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 기획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가는 습관이 없는 젊은이와 박물관을 연결하면, 다시 그 젊은이 자신이 다른 젊은이를 위하여 박물관 소개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박물관의 새로운 창조자가

된다는 것이며, 젊은이의 힘으로 젊어지고 싶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의 계획에서는 미술 관계의 박물관만이 이 기획의 대상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역사나 인류학 관계의 박물관 등도 참가하게 되었다. “박물관을 젊게 하는 작전”은 5년간 계속되었고, 그 성과는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기획의 내용은 젊은이들이 박물관을 발표회장으로 하여 전시품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역사자료나 미술품에 관심뿐만 아니라 전시품에 대한 역사나 제작기술에 대한 배경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박물관과 청소년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양자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날 것이다. 청소년은 교사와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 3.2. 박물관 네트워크

일본의 지방단위의 문화행정에서, 박물관은 시민을 위한 중요한 문화정보 시설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이 같은 공적·문화적 장치의 존재 양식은 대략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하나는 중심시설과 이것을 둘러싼 전문성·지역성이 높은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분산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중심 도시에 중심적 성격과 기능을 지닌 중앙 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성 및 전문적 기능을 지닌 박물관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창조를 위한 활력의 향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행정단위 속에 소위 종합박물관적인 성격의 중심기능을 이루는 대규모적인 박물관과, 이것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살린, 전문분야를 다루는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배치함으로써 거대하고 질이 높은 박물관 정보를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동향이라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도쿠시마현(徳島縣)의 “붕카나 모리(문화의 숲)”처럼 역사·자연사·미술 등 많은 종류의 성격 및 기능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야외연극장·매장문화재 센터 등을 배치한 것으로 “집중형”이라 불리는 것이다. 위의 두 방식 즉, 집중형과 분산형 박물관 네트워크는 모두 문제점과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 방대한 박물관 정보를 시민사회에서 유효하게, 더구나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4. 결론

조류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해안 지역 외에도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계획되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그 한 예로써 의왕시에 진행 중인 조류 탐사과학관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철새라는 자연의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시설물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철새를 불러오는 자연생태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시물이 주로 박제인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와는 달리 사이트가 자연생태 서식지에 있어야 하는 조류 탐사 과학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와 재료 공사 방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서해안 지역 조류탐사관 들은 아직 환경 친화적인 측면보다 관광자원의 건설이라는 관점이 앞서다 보니 그 형태에서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외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계획 시점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친환경적인 외관을 추구함을 볼 수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군산의 금강 조류공원의 경우 외형에 있어서 11층의 탐조 회랑과 오리 형태의 부화체험장 외관은 기능과 시인성 그리고 상징성에 있어서는 우수하지만 세련되지 못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나중에 계획된 홍성과 서천의 과학관은 둘 다 추상적 외관 디자인을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한 점이 보인다.

전시 내용에 있어서는 홍성 조류탐사 과학관의 경우 의인화 캐릭터를 개발하여 전시에 도입하고 추후 관광 상품으로 계획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새만 관찰하는 것으로는 쉽게 질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닌 재방문 관람자를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금강 조류공원은 해마다 철새축제를 개최하며, 보다 광범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철새공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120인 수용규모의 3D 입체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홍성의 과학관은 다소 작은 규모와 3D 입체 상영관이 아닌 일반 상영관을 갖고 있으며 시설과 조정의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열세이다. 그러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전시와 인테리어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서천의 과학관은 철새의 관찰에 가장 큰 전시의 초점을 둔 건축계획과 환경 교육적 전시

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3개의 탐조 관련 과학관은 늘어나는 관광객과 어린이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관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전시 및 에코뮤지엄 개념으로의 환경 보전에 대한 과학관의 지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규원 외, 도시 및 지역 문화정책의 변화와 도전, 지역문화 정책과 마케팅, 디프넷, 2005,
- [2]. 배리 로드, 문화 산업의 핵 박물관 디자인하기, 월간 디자인284, 2002
- [3]. 보니타 M. 콜브 지음, 이보아 외 번역, 문화예술 기관의 마케팅, 김영사, 2005
- [4]. 마이클 벨처,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예경, 2006
- [5]. 오즈카 카즈요시, 홍종필 역,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2004